이두호의 <임꺽정>에 나타난 각색의 양상

안영순
(순천대학교 만화예술학과 강사·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Ⅰ. 서론
Ⅱ. 홍명희의 『임꺽정』의 창작 의도와 인물 분석
1. 홍명희의 창작 의도
2. 주요 인물 분석
Ⅲ. 이두호의 『임꺽정』에 나타난 인물과 구조의 변용과 창조
1. 작품 전개의 출발점: 의적 모티프
2. 인물의 변용과 창조 양상
가. 임꺽정의 스승들과 오브제의 변형
1) 전다비와 제민도
2) 구공스님과 갖바치 양주봉
나. 임꺽정과 결의형제들
다. 서림과 보행수
3. 짝패 인물을 통한 새로운 구조 구축
가. [임꺽정-남치근] 쌍의 숙명성
나. [전다비-임꺽정] 쌍과 [김달평-차손] 쌍의 병치
Ⅳ. 결론

Ⅰ. 서론

최근 몇 년간 만화연구자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치열하고 활발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은 요즘 한창 부각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발전에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작품론이나 작가론과 관련해서는 아

직은 그리 만족스런 상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만화에서의 각색분야는 만화의 창작과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각색과 관련한 연구나 저작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홍명희의 대하역사소설 『임꺽정』과 이두호의 대하역사만화 『임꺽정』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스토리 만화에서의 각색에 관한 연구의 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그러면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색이란 낱말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말 사전을 보면 각색을 "소설, 서사시, 전설 따위를 각본으로 고쳐 씀"[1]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전의 정의는 이 용어가 연극이나 영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다른 우리말 사전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리말 사전보다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외국 사전을 두 가지만 인용한다.

1) 한 작품의 장르를 다른 장르로 전환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작업(예: 소설을 극작품으로 변형시키기). 각색(또는 극화)할 때, 서술내용(서술체, 이야기)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이따금 상당한 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담화구조는 송두리째 변형된다(특히 완전히 다른 언술행위로 이행할 때 그렇다).[2]

2) 각색이란, 원작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할 목적으로 한 예술작품을 변형시키거나, 혹은 완전히 개조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생겨난 작품도 역시 각색이라 부른다. 각색의 주요한 두 가지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첫번째 양식은 새로운 제작기법을 위해서 작품을 변형시킨다. 연극대본을 라디오로 방송할 목적으로 각색하는 경우가 그렇다. 오케스트라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곡된 소곡을 피아노로 연주하기 위해서 각색한다. ② 각색의 두 번째 양식은 원작의 그것과는 다른 대상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작품을 각색한다. 성인들 전용의 원작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각색하는 경우가 그렇다. 각색의 미학적인 문제들은 관련 예술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3]

---

1)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Vol. I, 57쪽.

2) Patrice Pavis, *Le Dictionnaire du théatre,* Paris: Messidor/ Editions sociales, 1987(신현숙 · 윤학로 옮김, 『연극학 사전』, 현대미학사, 1999, 23쪽).

3) Etienne Souriau, Vocabulaire d'esthé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0, p.46. "L'adaptation est l'action de modifier une oeuvre d'art, ou de la refaire complètement, en vue d'une destination artistique autre que celle de l'oeuvre originelle. On appelle aussi adaptation l'oeuvre qui résulte de cette action. Les deux principaux genres d'adaptation sont les suivants: 1/ Le premier genre modifie l'oeuvre en vue d'une nouvelle technique d'exécution. Ainsi on adapte une piède de théatre

이밖에도 많은 정의들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위에 인용한 파비스(Pavis)와 수리오(Souriau)의 견해를 좇아서 정의해 보자면, "각색이란, 어떤 작품을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전환시키거나 혹은 원작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색의 요체는 장르의 전환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원작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재창조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작자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각색과정에서 원작은 아이디어 제공자의 층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원작의 수많은 에피소드나 아이디어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배치한다거나 그것을 변용 내지 재창조하는 것이 각색자의 핵심작업이자 그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벽초의 소설이 이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작품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왜냐하면 임꺽정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벽초의 작품 말고도 소설, 만화, TV 드라마 등 여러 장르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만화에 실려 있는 '작가의 말'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해 주기에 충분한 것 같다.

>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였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주로 돈이 없어서) 헌책을 선호했던 나는 단골 엿장수로부터 아주 오래 된 책을 샀다.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거정(林巨正).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에는 판금이 돼 있어서 대단히 구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만화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또 '이왕이면 우리 것을 그리자'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임꺽정은 줄곧 내 머릿속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언젠가는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이 백정의 아들을 진정한 우리의 영웅으로 그려보리라.
>
> 꼬질꼬질한 책장 사이에서 풍겨나는 임꺽정의 퀘퀘한 사람냄새를 나는 내 만화로 그려내고 싶었다. 내 만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웅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4]

---

en vue de sa transmission à la radio. On adapte un morceau de musique écrit pour l'orchestre en vue de son exécution au piano. 2/ Le second genre d'adaptation modifie l'oeuvre en vue de sa présentation à un autre public que celui auquel était déstinée l'oeuvre originelle. Ainsi on adapte pour la jeunesse un roman dont l'original n'était destiné qu'aux adultes. Les probèmes esthétiques de l'adaptation sont très variés, selon les arts concernés."(번역 필자)

4) 이두호, 「작가의 말: 백정의 아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뿌리찾기」, 『임꺽정』 21권, 프레스빌, 1996, 8쪽. 이제부터 이두호의 『임꺽정』의 텍스트 인용은 이두호, 권수, 쪽수만을 표기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일 만화의 원작이 벽초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두 작품을 비교 연구하는 시도는 여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다룬, 만화와 소설이라는 두 장르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걸작으로 평가받는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물들과 구조들이 달라진 양상과 그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 역시 만화의 창작과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임꺽정]의 사적(史蹟)이 그렇게 소상하게 남아 있지 아니하여 상상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간"[5]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6]을 원작으로 삼고서, 원작의 어떠한 요소가 만화작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 내지는 창조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작가의 그러한 장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원작 소설의 창작 의도와 주인공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을 간략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Ⅲ장 제1절에서는 만화의 모티프는 무엇이며, 그것이 원작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고, 제2절에서는 원작의 인물들이 변용되거나 창조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작가가 독창적으로 작품 안에 구축한 구조를 분석하여, 작가의 창작 모티프와 어떻게 맞물리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Ⅱ. 홍명희의 『임꺽정』의 창작 의도와 인물 분석

1. 홍명희의 창작 의도

벽초가 『임꺽정』을 ≪조선일보≫에 연재하면서 남긴 글들을 보면 이 작품의 창작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의도는 대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옛날 봉건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던 백정계급 출신인 임꺽정이라는 인물의 의적으로서의 활약상을 그리고자 한 점이다.

---

5) 홍명희, 「조선일보의 『임꺽정전』에 대하여」, 『임꺽정』 10권, 사계절, 1991, 137-138쪽. 이 글은 원래 1929년 6월에 발행된 《삼천리》 1호의 27쪽에 실렸던 것을, 사계절출판사에서 현대 표기법으로 고쳐 전10권으로 『임꺽정』의 정본(正本)을 1991년에 출판할 때 10권의 부록 1, 「저자 홍명희 선생의 말」에 개재된 것임.

6) 홍명희의 『임꺽정』의 텍스트 인용은 사계절출판사, 1991년판에 따른 것으로서, 이제부터는 홍명희, 권수, 쪽수만을 표기함.

(…) 내가 생각할 때에 조선일보의 이러한 선전이 도리어 몸괴롭기도 합니다마는 좌우간 내가 임꺽정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흥미를 느껴온 지는 이미 오래었습니다. 임꺽정이란 옛날 봉건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던 백정계급의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가슴에 차넘치는 계급적 해방의 불길을 품고 그때 사회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만 하여도 얼마나 장한 쾌거였습니까?

더구나 그는 싸우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가 진두에 나선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백정의 단합을 먼저 꾀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특수 민중이란 저희들끼리 단결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외다. 백정도 그러하거니와 체장사라거나 독립협회 때 활약하던 보부상이라거나 모두 보면 저희들끼리 손을 맞잡고 의식적으로 외계에 대하여 대항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 심리를 잘 이용하여 백정들의 단합을 꾀한 뒤 자기가 압장서서 통쾌하게 의적 모양으로 활약한 것이 임꺽정이었습니다.[7]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음의 인용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조선 정조(朝鮮情調)에 일관된 작품'을 만들고자 한 점이다.

임꺽정의 사기는 극히 단편단편으로 떨어져 있는 것밖에 없어서 대개는 나의 복안으로 사건을 꾸미어가지고 나갑니다. 다만 나는 이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조선 문학이라 하면 예전 것은 거지반 지나(支那)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건이나 담기어진 정조들이 우리와 유리된 점이 많았고, 그리고 최근의 문학은 또 구미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양취(洋臭)가 있는 터인데 임꺽정만은 사건이나 인물이나 묘사로나 정조로나 모두 남에게서는 옷 한 벌 빌려입지 않고 순조선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조선 정조(朝鮮情調)에 일관된 작품' 이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8]

이 두 가지를 종합하자면, 벽초의 창작 의도는 임꺽정의 형상화를 통한 계급의식의 고취와 조선적 정조의 복구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도 중에서, 당시의 사회적 신분 계층에 따른 이원적인 언어의 구사,[9]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많은 고유어와 속담을 복원

7) 홍명희, 「조선일보의 《임꺽정전》에 대하여」, 홍명희, 같은 책, 137쪽.
8) 홍명희, 「《임꺽정전》을 쓰면서」, 같은 책, 139-140쪽.
9) 『임꺽정』에서 양반사회에 속한 인물들이 주로 한문식 어투를 사용하는 데 반해 평민층의 인물들은 순

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 점, 그리고 당시의 풍습과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한 점 등에서 두번째 의도는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10]

2. 주요 인물 분석

소설과 각색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분석을 같은 절에서 다루지 않고 절을 달리하는 이유는, 소설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만화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삭제 또는 합성되거나 변용됨으로써 작가가 새로이 창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소설의 인물들 가운데 임꺽정과 결의형제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외모, 성격, 특기, 청석골 입산 동기와 행적 등을 요약하면서, 그들이 벽초의 첫번째 창작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인공 임꺽정은 양주 백정 임돌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원래는 놈이었는데, 그의 외조모가 장래의 걱정거리라고 "걱정아"라고 부른 것을 누이인 섭섭이가 외조모의 흉내를 잘못내어 꺽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팔구 세 때부터 몽근 벼 한 섬을 예사로 드날랐을 만큼 힘이 장사인데다가 성질이 불 같아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였다. 임꺽정은 어린 시절부터 반상(班常)에 대한 우여곡절의 감정을 겪게 되는데, 양반 아이가 꺽정에게 "백정놈의 자식이"[11]라고 했던 글방 사건에서부터 양반에 대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해의 시신을 수습해 준 일 때문에 걱정의 부자가 양주 관아에 투옥되어 태형을 당하면서, 임꺽정의 양반과 세상을 미워하는 생각이 뼈에 사무치게 깊어간다. 임꺽정은 평생을 통해서 백정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 양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그의 머리속에 가득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뒤집어보고 싶은 생각이 그의 가슴속에 타올랐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도록 난리가 나기를 학수고대하기까지 한다.[12] 이러한 사실은 임꺽정이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군총에 뽑혀 공을 세워서 양반사회에 편입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기회마저 박탈되고 마는 데서 잘

수한 우리말 어투를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임꺽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신분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가 구사되고 있는 것을 한창엽은 계층 상호간에 소통이 불가능한 당시 신분사회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한창엽, 『互正의 서사와 패로디』, 국학자료원, 1997, 220쪽).

10) 첫번째 의도에 대해서는 제II장 제2절의 끝부분에서 언급할 것이다.

11) 홍명희, 2권, 157쪽.

12) 병해 대사: "난리를 저렇게 고대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야." (홍명희, 3권, 291쪽)

드러난다. 결국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기존의 사회체제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철저하게 막혀 있는 셈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청석골에 입산하는 동기를 살펴보자. 다음은 동생인 팔삭동이에게서 평양 봉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최서방이 양주 관아에 그 사실을 밀고하여 임꺽정의 식구들이 투옥된 직후의 일이다.

> 꺽정이 앞에 세갈랫길이 놓여 있었다. 한 갈래는 식구들이 갇혀 있는 옥으로 들어가는 일이니 이 길로 가면 적어도 극변(極邊)이나 원악도(遠惡島)를 안 가지 못할 것 같고 또 한 갈래는 식구들을 버리고 정처없이 떠나는 길이니, 이 길로 가면 나중 돌아올 기약이 망연할 뿐 아니라 돌아오게 되더라도 식구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고, 마지막 한 갈래는 식구들을 옥에서 빼내가지고 청석골로 달아나는 길이니, (…) 이 길로 가면 막이 적굴에 빠져서 도둑놈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 세갈랫길이 다같이 꺽정이 마음에는 좋지 않았다.[13]

여기에서는 "과단성 많은"[14] 임꺽정도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도적놈의 힘으로 악착한 세상을 뒤엎을 수만 있다면 꺽정이는 벌써 도적놈이 되었을 사람이다. 도적놈을 그르게 알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는 아니하되 자기가 늦깎이로 도적놈 되는 것도 마음에 신선치 않거니와 외아들 백손이를 도적놈 만드는 것이 더욱 마음에 싫었다."[15] 그러나 그는 결국 세 번째의 길을 택하여 살인과 방화 그리고 탈옥의 대죄를 범하고는 가족을 이끌고 청석골로 피신한다. 임꺽정의 청석골행은 현실의 모든 희망이 좌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극단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선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청석골 두령들의 입산 동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적어도 벽초가 그리고자 했던 의적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칠장사에서 일곱 명이 "사생동고"키로 "결의형제"를 맺고 임꺽정이 청석골 대두령이 된 후 황해도 일대의 화적패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독자들에게 의적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약탈, 방

---

13) 홍명희, 6권, 124쪽.
14) 같은 책, 124쪽.
15) 같은 책, 124쪽.

화, 살인 등 악행일 뿐이며, 양민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탐관오리들을 처단하거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휼하는 행동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다음의 인용문은 임꺽정의 품행을 묘사한 대목이다.

> (…) 대체 꺽정이의 처지의 천한 것은 그의 선생 양주팔이나 그의 친구 서기(徐起)나 비슷 서로 같으나 양주팔이와 같은 도덕도 없고 서기와 같은 학문도 없는 까닭에 남의 천대와 멸시를 웃어버리지도 못하고 안심하고 받지도 못하여 성질만 부지중 괴상하여져서 서로 뒤쪽되는 성질이 많았다. 사람의 머리 베기를 무 밑동 도리듯 하면서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차마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논밭에 선 곡식을 예사로 짓밟으면서 수채에 나가는 밥풀 한낱을 아끼고 반죽이 눅을 때는 홍제원 인절미 같기도 하고 조급증이 날 때는 가랑잎에 불붙은 것 같기도 하였다.[16]

벽초의 묘사에서 보면 임꺽정은 대단히 괴팍하고 다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불학무식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의 괴팍한 성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욕설하는 양반 아이를 다짜고짜로 주먹다짐한 일을 글방 선생이 나무라자, 책을 들어서 선생의 면상에 내던지고 "글을 안 배우면 고만이다"[17] 하고 휑하게 집으로 돌아와버렸기 때문이다. 임꺽정의 이러한 성격과 행적을 보면, 그가 외부 현실의 신분적인 사회질서의 모순과 부당한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홍정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꺽정은 "단순하고 과격하며 직선적인 성격은 자신의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회의를 하지 못하며 사회의 모순에 대한 복합적 요인을 심사숙고하는 비판적 안목이 결여되고 있는 인물"[18]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임꺽정과 결의형제를 맺은 여섯 두령들의 중요한 면모와 청석골 입산 동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임꺽정과 동갑내기이면서 첫째 동생인 이봉학에게는 청석골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양반의 뿌리가 남아 있다. 이봉학의 할아버지는 본래 종반(宗班)으로 노는 계집과 상관하여 학년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학년은 아버지가 찾지 아니한 까닭에 모계를 따라서 천인이 되었다. 그러나 학문이 있어서 당대의 문인 학사들과 어울렸는데, 봉학이는 바로

16) 홍명희, 7권, 23쪽.
17) 홍명희, 2권, p.158.
18) 홍정운, 「임꺽정의 의적 모티프」, 임영택 · 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 林巨正의 재조명』, 사계절, 1988, 154쪽(장세진, 『한국대하역사소설연구』, 도서출판 훈민, 1998, 91쪽에서 재인용).

학년의 아들이다. 이봉학은 어린 시절 임꺽정, 박유복과 함께 혜화문 안 갖바치의 제자였던 때 서로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이봉학은 활의 명수이다. "네가 선달 출신이라도 하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이생에 남기고 가는 한(恨)이다. 이 다음에 벼슬하거든 외할미 무덤에 소분 올 것을 잊지 마라"[19]는 외조모의 유언에 따라 그는 군총에 자원하여 신분 상승을 꿈꾼다. 신궁(神弓) 같은 활솜씨와 담력 덕분에 그는 전주 감영의 공방 비장, 정의 현감, 군기시 직장, 임진 별장 등의 벼슬을 지냈다. 임진 별장으로 있을 당시, 파옥한 임꺽정에 대한 의리 때문에 밤배를 내준 것이 화근이 되어 청석골에 입당하게 되었지만, 본래 화적질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청석골패에 가담한 뒤에도 임꺽정처럼 양반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포함하여 양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

꺽정의 둘째 동생은 박유복인데, 그는 본래 황해도 강령 사람으로서 농군이었던 아버지가 모함으로 죽은 후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복이란 이름을 얻었다. 그는 기운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고 표창의 달인이다. 그는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전국을 누비다가, 원수를 갚고 도망을 가던 도중에 덕적산 최영 장군 사당에서 장군의 신혼 마누라를 첫날밤에 훔쳐서 제 마누라로 삼고, 청석골을 지나다가 그곳 토박이 산적인 오가를 제압하고 청석골에 자리를 잡게 된다. 꺽정이패 가운데 제일 먼저 청석골에 들어온 셈이다. 박유복이 평안도 역사를 끝마치고 올라왔을 때 상목을 많이 남겨온 일화가 말해주듯[20] 그는 융통성이 없고 대단히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의리와 우애가 깊은 인물이다.

셋째 동생인 배돌석은 팔매 솜씨로 호랑이를 잡았을 정도로 돌팔매의 귀신이다. 을묘왜변 때 출전하여 각각 남치근과 김경석의 수하에 있던 이봉학과 배돌석의 시합은 그들의 활솜씨와 돌팔매 솜씨를 유감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우선 배돌석의 외모와 상을 보자. 그의 모습은 "키가 작달막한, 가슴은 바라질 대로 바라지고 얼굴은 가무잡잡한데 이목구비가 오종종하게 박혀 있으며,"[21] 그의 상을 보면 황천왕동의 장인이 돌석의 "얼굴은 반상이구 눈은 사목인데 사목이란 뱀의 눈이야"[22]라며 황천왕동이에게 돌석을 가까이 말라고 충고한 일도 있듯이 악질의 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고생을 팔자에 타고났다"[23]는 자신의 말처럼 그는 고향인 경상도 김해에서 황해도 구석까지 "거지바람이 불어서 얻어먹으러"[24] 왔을 정도로 갖은 고생과

19) 홍명희, 3권, 314쪽.
20) 홍명희, 8권, 327쪽.
21) 홍명희, 3권, 346쪽.
22) 홍명희, 5권, 264쪽.
23) 같은 책, 221쪽.

수모를 겪은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청석골패 어느 누구보다도 여색을 밝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황천왕동이가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다. 그는 스물한 살에 장가를 들었으나, 얼마 살지 않아서 처가 의붓어머니를 홀대한다고 쫓아버렸다. 그러다가 김 도사 집에 비부로 들어가서 얻은 둘째 처가 주인 양반과 사통하는 현장을 덮쳐서, 사내와 계집에게 성기 모양으로 자자(刺字)한 후 쌀을 훔쳐 달아났다. 그후 돌석이가 경천역에서 역졸 노릇을 할 때, 호랑이 잡은 것이 인연이 되어 그 호랑이에게 물려죽은 사람의 어머니를 수양모로 삼고, 그 혼자된 며느리를 아내로 데리고 산 적이 있는데, 그 아내도 이웃사내와 놀아났다. 돌석이는 계집바꿈이라고 하면서 그 사내의 계집을 겁간하고, 자기 아내와 사내를 때려죽였다. 이 살인사건 때문에 도타(逃躲)한 것이 그의 청석골행의 이유이다. 청석골에 와서도 그의 여색행각은 그치지 않는다. 아마도 두령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파수꾼 패두인 김억석의 과년한 딸을 상관해서 그 처녀를 처로 삼았다. 그리고 이처럼 상당히 변태적인 모습 외에도, 그는 "망나니와 개고기"[25] 라는 별명에 걸맞게 타고난 싸움꾼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을묘왜변 때 투석대 대장이었던 그가 전정(前程)을 망친 것도 그의 타고난 호전성 때문이었다.

넷째 동생인 황천왕동이는 임꺽정의 처남이다. 꺽정이의 처인 운총이와 동생인 천왕동이는 인간세계와는 유리된 곳인 백두산 허항령에서 "사심(邪心)없이 자란"[26] 까닭에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다. 황천왕동이는 "걸음이 사슴같이 빨라서"[27] 청석골패의 전령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된다. 또한 그는 장기를 잘 두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는데, 그 재주 덕택에 봉산 백이방의 예쁜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가장 예쁜 아내를 둔 천왕동이는 다른 여자에게는 절대로 한 눈을 팔지 않았다. 그가 정숙하지 못한 김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덕에, 김산이 그의 아내를 살해하고 청석골로 들어와 두령이 된 일화도 있다. 관상쟁이가 청석골패의 상을 보던 중 "후분 좋기가 좌중의 제일이라던"[28] 상을 가진 천왕동이는 예쁜 아내를 얻고, 봉산에서 그의 장인보다 높은 직급인 장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살인범으로 압송되던 배돌석을 도주시킨 죄로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한 후에 정식으로 청석골패에 입당했다.

다섯째 동생인 곽오주는 "우락부락하고 거무무트름하게"[29] 생겼으며, 강령 향나뭇골 농

24) 홍명희, 5권, 221쪽.
25) 같은 책, 5권, 227쪽.
26) 홍명희, 2권, 302쪽.
27) 같은 책, 292쪽.
28) 홍명희, 6권, 205쪽.
29) 홍명희, 4권, 170쪽.

민의 막내 아들이었다.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홉 살에 아버지를 마저 여읜 뒤로 맏형수에게 눈칫밥을 얻어먹게 되면서 고생맛을 알기 시작했다. 열 살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래동 정첨지의 아들이 난봉질로 보쌈해 온 신뱃골 젊은 과부를 우여곡절 끝에 처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그의 처가 산후 조리를 잘못하여 죽게 된 후에, 젖동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는 어린애를 가로안고 둥둥이를 치다가 급하고 참을성없는 성미에 동댕이를 쳐서 아이가 죽었다. 그 후로는 어린아이 우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발작하여 어린아이를 해치게 되었다. 쇠도리깨질을 잘했던 그가 박유복의 권유로 청석골에 입당한 뒤로는 사람의 팔뚝이나 정강이를 장난삼아 분지르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보기만 해도 쇠도리깨로 박살하여 죽였다. 그는 그러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에 대한 분별이 없이 말을 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이 있는 인물이며,[30] 임꺽정과 대접으로 대작할 정도로 술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인물이다.

끝으로 결의형제의 막내인 길막봉이는 일찍이 임꺽정과 맨손으로 호두와 잣을 깨는 힘자랑을 했을 정도로, 청석골에서 임꺽정이 다음으로 힘이 장사다. 소금장수인 그는 소금을 팔러 갔다가, 안성에서 혼자 집을 보고 있던 귀련이란 처녀의 몸을 뒤져서 상관하고, 그 집의 데릴사위가 된 일화가 있을 만큼 숭물스러운 인물이다. 결국 그도 장모의 구박과 냉대로 데릴사위에서 쫓겨나, 오가의 권으로 청석골 도적이 되었다.

이상으로 청석골 일곱 결의형제의 면모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는 대체로 힘이 장사이며 무술이 뛰어나고, 무식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임꺽정과 결의형제를 맺지는 않았지만, 진상할 봉물을 훔친 혐의로 도망하다가 청석골로 투항한 아전 서림은, 평양서 오는 진상 봉물을 몽땅 터는 계략을 인정받아 청석골 두령이 되어 임꺽정패의 모사(謀士) 역할을 한다.

이처럼 청석골패의 두령들은 각각 주특기 무술을 가지고 있었고 서림의 뛰어난 지략까지 가세했으니, 그들이 부패한 탐관오리들로부터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만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결의형제 후에도 역시 그들의 행적은 그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꺽정의 의적으로서의 활약상을 그리고자 했던 벽초의 창작 의도는 과연 성공한 것일까? 물론 벽초의 소설이 미완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소설에서 임꺽정을 의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청석골에 끌려온 신진사가 서림에게 훈계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

30) 오주가 박유복을 따라 청석골에 놀러 와서 꺽정과 처음 만났을 때를 예로 든다.—곽오주: "저 털보가 꺽정이란 이요?"(홍명희, 4권, 267쪽)

옛말에 양상(梁上)에 군자(君子)가 있고 녹림(綠林)에 호걸(豪傑)이 있다 하니 그대네 중에 군자도 있을 것이요, 호걸도 있을 것인데 그대네가 어찌하여 대당(大黨) 소리들만 듣고 의적(義賊) 노릇들은 하지 않는가. 의적이 되려면 의로운 자를 도웁기 위하여 불의한 자를 박해하고 약한 자를 붙들기 위하여 강한 자를 압제하고 또 부자에게서 탈취하면 반드시 빈자를 구제하여야 할 것인데 그대네의 소위는 빈부와 강약과 의·불의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박해하고 압제하고 탈취하되 인가에 불놓기가 일쑤요, 인명을 살해하는 게 능사라 하니 이것이 그대네의 수치가 아닐까. 그대네가 전일 소위를 다 고치고 의적 노릇을 해볼 생각이 없는가. 다 고쳐야 할 일이지만 그중에도 지중한 인명을 무고히 살해하는 건 천벌(天罰)을 받을 일이니 단연코 고치라고.[31]

임꺽정이패의 의적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많지만,[32] 청석골패에 대한 서진사의 꾸짖음은 이처럼 통렬하다. 임꺽정과 그의 패거리의 행적을 보면 그는 천한 도적임을 면하지 못한다.[33] 요컨대 소설에서 임꺽정과 청석골패는 사회체제를 위협하기는 하지만, 혁명세력으로서보다는 반(反)사회적인 화적(火賊)의 집단으로 단순하게 형상화됨으로써 벽초의 원래 의도와는 크게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III. 이두호의 『임꺽정』에 나타난 인물과 구조의 변용과 창조

1. 작품 전개의 출발점: 의적 모티프

이두호의 창작 의도는 서론에서도 잠깐 인용한 바 있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31) 홍명희, 9권, 31쪽.

32) 종반(宗班)인 단천령과 금교역말 주막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꺽정이패가 길세란 명목을 내걸고 탑고개 지나가는 사람에게 세를 받는답디다."
"그래 행인 한 사람에 세를 얼마큼씩 받는다던가?"
"근처 장꾼에게는 대개 십일조를 받구 여느 행인에게는 들이없이 받는답디다."
"인명은 살해하지 않는다던가?"
"웬걸요. 선심이 내키면 물건만 뺏구 선심이 들이키면 목숨두 뺏는갑디다. 며칠 전에두 평산·봉산 선비님네 여러분이 작반해서 탑고개를 지나오다가 꺽정이에게 붙들려가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죽구 겨우 세 분이 살아갔습니다."(홍명희, 9권, 77쪽)

33) 장세진은 임꺽정과 청석골패가 힘없는 민중들의 억눌린 마음을 후련하게 씻어줄 자질의 소유자들임에도, 그들이 의적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화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그들의 역사의식 부재로 들면서, 이 점을 '의적소설'로서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지적한다.(장세진, 같은 책, 95쪽)

있다. 관련되는 부분만 다시 인용한다.

> 만화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또 '이왕이면 우리 것을 그리자'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임꺽정은 줄곧 내 머릿속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언젠가는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이 백정의 아들을 진정한 우리의 영웅으로 그려보리라.
>
> 꼬질꼬질한 책장 사이에서 풍겨나는 임꺽정의 퀘퀘한 사람냄새를 나는 내 만화로 그려 내고 싶었다. 내 만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웅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
>
> 지금까지 나는 임꺽정의 성격을 굳이 규정해 놓지 않고 그려왔다. 의적? 영웅? 화적? 나는 임꺽정이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회를 살아가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정의감을 형성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내는가 하는 과정이었다.
>
> 내 만화에서 임꺽정은 그저 힘세고 정의로운 백정의 아들이다. 분노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때로는 미련하고 우직한 사나이다. 나는 이 우직한 사내를 통해 반만년의 역사를 묵묵히 떠매고 온, 수없이 짓밟혔으나 결코 꺾이지 않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다.[34]

위의 인용문에서 작가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이왕이면 우리 것을 그리자'는 생각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벽초의 두 번째 창작 목표였던 '조선 정조에 일관된 작품'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저 힘세고 정의로운 백정의 아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의감을 형성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내는가 하는 과정'을 그리고 싶은 생각 역시, 벽초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소설과 만화의 창작 의도는 두 가지 점에서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원작에서는 임꺽정과 청석골패가 역사의식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벽초의 의도와는 달리 의적으로 발돋움하지 못했음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만화에서 작가는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원작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함으로써 만화 『임꺽정』에 나타난 각색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제Ⅲ장의 내용이다.

---

34) 이두호, 「작가의 말: 백정의 아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뿌리찾기」, 『임꺽정』, 21권, 8-9쪽.

2. 인물의 변용과 창조 양상

가. 임꺽정의 스승들과 오브제의 변형

1) 전다비와 제민도

원작에서 임꺽정이 의적으로서의 역사 인식과 자질을 결여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화에서 작가가 가장 공을 들여 마련한 장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꺽정의 스승들이다. 원작에서 꺽정의 검술 선생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으며, 단지 그가 서울 사람으로서 외소군관(外所軍官)을 다니다가 삼포왜변이 났을 때 출전하였으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박연중과 평산 운달산에서 같이 지내게 된 내력 정도만 소개되어 있다. 처음에 그는 부평 구슬원의 외딴 주막 늙은이로 등장한다. 그는 꺽정의 정신적 지주였던 또 한 명의 스승인 갖바치 양주팔과는 직접 관련은 없으며, 다만 검술 선생이 운달산 화적의 두목을 하다가 그 자리를 물려주었던 박연중으로부터 갖바치의 인물됨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이다. 꺽정이가 구슬원에 처음 갔을 당시, 그 늙은이는 부평 계양산의 화적 괴수 노릇을 하고 있었으며, 계양산 사람들이 주막에 있는 그에게 양식을 대주고 있었다. 꺽정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꺽정이가 장사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꺽정이의 검술 수업이 끝나자 그는 다시 운달산으로 들어간다.

만화에서 작가는 검술 선생에게 원작에 없던 이름과 함께 그의 복잡한 내력을 부여한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전다비(全多匪)인데, 구공 스님은 그를 '잔나비'[35]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서울 갖바치댁에 가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만난 '떠벌 스님' 구공이 보여준 칼에 베인 쇠벙거지가 계기가 되어, 임꺽정이 검술 수업을 받게 된다.

작가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서 전다비와 구공을 연결짓는다. 전다비와 구공의 어린 시절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전다비는 원래, 대대로 벼슬을 살았으며 만석지기 집안이었던 구공[36]네 집에 명토 박힌 종이었다. 굶주린 백성들이 난리를 피워서 집이 불타고, 재구네 식구들이 다 죽고 재구도 성난 백성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전다비가 기지로 그를 빼내어 같이 도망치게 되었다. 재구보다 나이가 예닐곱 위였던 전다비는 머리가 비상하여, 재구의 독선생

35) 구공: "몸이 어찌나 잽싸고 날랜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잔나비였어"(이두호, 10권, 187쪽).

36) 구공의 아명은 재구(같은 책, 156쪽)였는데, 그가 나중에 절에 들어가 불목하다가 머리를 깎았을 때 곰보 스님이 지어준 법명이 바로 구공(口控)(같은 책, 210쪽)으로서, 이 때문에 그는 '지각없는 주둥이'라는 의미에서 '떠벌 스님'이라고도 불리며 그의 행동양식도 그러한 면을 많이 보여준다.

의 어깨 너머로 글을 익힌 것이 화근이 되어 그의 어머니가 독선생에게 겁간을 당하고 멍석말이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2년 후 재구의 집이 풍비박살나고, 전다비는 구걸로 어린 재구를 먹여 살리는데, 그 시절에 도련님과 종이었던 관계가 형과 아우로 바뀐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거치며, 그들이 실제로도 어미만 다른 이복형제였음이 드러난다. 재구의 아버지는 계집종, 소작인 계집을 닥치는 대로 밤노리개로 삼았는데, 전다비의 어머니도 그 대상이었던 것이다.[37]

전다비가 누구에게서 검술을 전수받았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허암 정희량일 것으로 짐작된다.[38] 음양학에 밝은 스승을 두어서인지, 꺽정의 스승들은 모두 앞일을 예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다. 임꺽정이 갖바치댁에 가는 길에 불쑥 나타난 구공이 칼에 베인 쇠벙거지를 보여주면서 그를 전다비에게 유혹한 일화도 그러한 예들 가운데 하나이다. 임꺽정이 구슬원에서 전다비 스승에게 검술 수업을 하기 전에, 그는 한 가지 시험을 거치게 된다. 임꺽정은 실로 호박을 찌르라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데, 이 시험은 원작에는 없는 것인데 작가는 시험을 통하여 임꺽정을 인내심과 기지를 갖춘 인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스승은 "작정이 없으면 배움이 늦어지느니라"[39]라며 꺽정을 독려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전수한다. 작가는 검술 수업에서 한끼도 빠뜨리지 않고 사제간의 밥그릇 싸움을 추가함으로써, 사제간에게는 인간미와 애정을 그리고 독자에게는 재미를 선사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스승에게 양식을 대주던 사람들은 원작에서는 계양산 화적이었는데, 만화에서는 삼포왜변 때 겁탈당할 위기에 처한 서사달의 부인을 구해 준 은혜로 서사달이 전다비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스승의 인격에 변화를 주었다.

임꺽정이 스승의 목검을 부러뜨렸을 때 검술 수업이 비로소 끝나게 되는데, 늙은 스승은 제자와 이별할 때가 됨을 알고서[40] 제자에 대한 상사병을 앓게 된다.[41] 이별하던 날 아침 스승은 꺽정에게 '제민도(濟民刀)'를 정표로 주며 꺽정의 다짐을 받는다. 제민도는 스승이 삼포

37) 전다비의 어머니의 유언: "천륜을 … 어겨선… 아니된다. (…) 여… 영감 마…님… 이… 네… 아… 버…지…다."(이두호, 10권, 269쪽)

38) (전다비가 구공과 갖바치에게) "자네들이 스승으로 뫼셨던 그 어른이 뉘신 줄 아는가?"
구공: "글쎄요. 신상에 대해선 끝내 한 말씀도 없으셨으니…."
전다비: "허암 정희량이시다. 시문에 능하시고 음양학이 밝으시어, 갑자년에 큰 사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지. (…) 어머님 원수를 갚으려고 독선생을 찾아헤매다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나를 구해 주셨지!"(같은 책, 252-253쪽)

39) 이두호, 1권, 47쪽.

40) 전다비: "겨울과 봄은 결코 서로 함께할 수가 없느니라."(같은 책, 111쪽)

41) 박창생: "시생이 뵙기엔 상사병 비슷한… 마음의 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요."(같은 책, 106쪽)

왜란 때 출전했다가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인데, 십수 년 전 손자와 며느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준 뒤, 그때까지 벽장에 넣어두었던 칼이다.

> 전다비: "제민도(濟民刀)!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줄 칼! (…) 아마…, 그 칼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길 바라는 뜻에서 제민도라 새긴 것 같은데…. 명심해라! 너는…, 이 옹졸한 스승이 고작… 자신의 복수에 쓴 것처럼 그 칼을 써서는 아니된다."[42]

스승의 대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말줄임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마도 이별의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꺽정이의 의적으로서의 역할을 절박하게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43]

그리고 원작에서 검술 선생이 물려주는 칼의 이름은 '장광도(長光刀)'였는데, 이 이름은 칼의 질료(質料)적인 측면이 강조된 이름이다.[44] '제민도'는 만화에서 '의(義)'라는 글자가 새겨진 신표(信標)와 더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오브제'[45]로서, 작가가 '장광도'를 '제민도'로 변형시킨 것은 작가의 일관된 '의적 모티프'가 강조되어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46]

작가에 의해서 다른 인격과 개성을 가진 인물로 육화(肉化)된 전다비는, 꺽정에게 의적이라면 갖춰야 함직한 자질인 검술 실력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꺽정이의 뇌리에 새겨주었으며, 인간에 대한 애정을 청년 꺽정의 가슴에 심어주

---

42) 이두호, 1권, 113쪽.

43) 이러한 추측은 다음의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다비: "지금까지 벽장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제…, 네 손으로 햇빛을 보게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같은 책, 112쪽)

44) 검술 선생: "철색(鐵色)을 보아라. 철중쟁쟁(鐵中錚錚)이라더니 이런 것이 쟁쟁한 철이다. 그리하고 칼끝을 보아라. 명공(名工)의 비범한 솜씨가 아니면 저와 같이 쏙 빠지게 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제포 진중에서 얻은 뒤로 삼십 년이 가까웠으나 날카롭게 드는 맛에는 언제든지 새삼스럽게 반하지 아니할 수 없다."(홍명희, 2권, 209쪽)

45) 오브제(objet)란 프랑스어로서 영어의 object에 해당한다. 이 용어는 극작술과 연극기호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연극 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브제는 질료에 해당하는 용어로 정신적 매체와 대비되는 극의 물질적·가시적 재료를 총칭한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오브제는 장신구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현대극 이론에서 오브제란 구체적 활동(놀이)의 구체적 대상이자 그것이 도상 혹은 지표가 되고 있는 어떤 것의 기호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기호학적 존재가 된다."(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990, 198쪽 참조)

46) 원작의 경우에 '장광도'는 자연주의적 오브제임에 비해서, 만화의 '제민도'는 작가에 의해 상징주의적 오브제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오브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Patrice Pavis, *op. cit.*, pp.351-352를 참조할 것)

었다. 꺽정을 내보낸 뒤 누워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는 스승의 눈물어린 눈에서 독자들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꺽정이는 털보수염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 갖바치가 죽은 후, 구공이 모시고 있던 스승은 꺽정을 기억하지 못했다. 꺽정은 "나는 선생님께 따뜻한 밥 한끼라도 지어 올리고 싶다. 꺽정아 하시면서 한 번만이라도 내 등을 다독거려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홍역을 앓고 난 나를 꼬옥 보듬어주셨던 그때처럼…"[47]라고 말하며, 아우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노망이 든 스승의 기억을 되살려보려고 옛날의 칼춤을 춰 보이기도 하고 밥그릇 싸움도 해본다. 임꺽정의 이러한 인간미 넘치는 애정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2) 구공스님과 갖바치 양주봉

구공스님과 갖바치 양주봉은 원작에서는 한 사람의 동일한 인물인 양주팔(楊周八)을, 작가가 각기 다른 인격과 역할을 부여하여 두 사람으로 분리해 창조한 인물들이다. 그러면 먼저 원작에서의 양주팔에 대해서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만화에서의 두 스승의 면모와 역할을 분석하기로 한다.

교리 벼슬을 지내던 이장곤이 거제도 귀양소에서 북방길로 피신길에 올랐다가 함흥에서 봉단이란 고리백정의 딸과 혼인을 했는데, 그 봉단의 아버지인 양주삼의 동생이 양주팔이다. 그는 백정의 신분임에도, 의약뿐이 아니라 문식(文識)이 있는 까닭에 근처 양민들이 '백정학자'[48]라고 불렀다. 평소 주팔이와 같은 인물이 천인으로 썩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이장곤은, 중종반정 후 복권되어 동부승지로 벼슬이 오르게 되자, 북부 안국방 대안동에 와가를 장만하여 양주팔을 기거하게 한다. 짧았지만 이 시절은 주팔에게 있어 "겨울벌레의 신세"[49] 같은 갑갑한 시기였다. 봄이 되자 주팔은 구경삼아 묘향산으로 떠난다. 묘향산에서 그는 이천년으로 변성명하고 삼성대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암자에서 은거하고 지내던 허암 정희량의 제자가 된다. 주팔을 사랑하는 스승으로부터 그는 『삼원명경(三元明鏡)』이란 사주책을 배우고, 주문(呪文)에 관한 책인 『망단기결(望斷奇訣)』과 『부주비전(符呪秘傳)』까지 전수받아 거리낄 것 없는 지식을 갖추게 된다.

스승의 말씀에 따라 주팔은 다시 서울생활을 하게 된다. 묘향산에서 돌아온 주팔은 혜화문 문턱 밑에 살면서 갖바치 노릇을 하였다. 이 시절에 그는 이름 대신에 갖바치라고 불렸으

47) 이두호, 10권, 149쪽.
48) 홍명희, 1권, 56쪽.
49) 같은 책, 166쪽.

나, 신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지는 않았다. 당시 이조판서인 이장곤이 시량 범절을 돌보아 주는 까닭에 이웃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의식 걱정이 없이 살았다. 이 시기에 그는 당대의 명사인 조광조, 최수성, 심의, 김덕순 등과 교유하면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임꺽정, 이봉학, 박유복을 가르친다. 글공부를 버렸던 임꺽정이 글이 아닌 이야기로나마 갖바치로부터 병서(兵書)를 배운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러다가 그는 30년 전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서 구룡산으로 향한다.

정희암은 『부주비전』과 『망단기결』을 갖바치에게 태우게 한 뒤, "명일 오시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터이다"[50]라며, 자신의 신후사를 평토로 치라고 유언을 남긴다. 스승의 초종(初終)을 치른 후, 갖바치는 묘향산으로 들어갔다. 30년 전 양주팔이 묘향산에서 이천년의 제자였을 때 면분이 두터웠던 수월당의 노장 중은 그 동안에 이미 열반에 들었고, 그때의 상좌가 수월당의 수장중이 되어 있었다. 갖바치는 수월당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승명은 병해(甁亥)라고 하였다.

병해대사는 수월당에서 얼마 안 있다가 임꺽정을 불러 백두산, 금강산, 월출산, 한라산, 지리산을 두루 답파한다. 임꺽정이 백두산 허항령에서 운총을 만나 가시버시 연을 맺은 것도 이때이다. 임꺽정은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인 병해대사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억눌리고 고난에 찬 삶과 관리들의 부패상을 목도하고 직접 경험하게 된다. 병해대사는 명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죽산 칠장사(七長寺)에 은거했는데, 근방 사람들은 그를 생불(生佛)이라 불렀다.

원작에는 병해대사가 앞일을 정확히 예견한 일화가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명종 때 섭정하던 문정왕후를 끼고 국정을 농간했던 보우에 관한 이야기이다. 병해대사는 일찍이 갖바치 시절에 보우 같은 요승(妖僧)이 나오리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다.[51] 병해대사가 금강산 수미암에 쉬고 있을 때의 일이다. 병해대사에게 욕을 당한 것이 분해서, 보우가 그를 잠든 사이에 죽이려고 식칼로 찌른 것이 목침이었다. 병해대사가 꽂힌 식칼을 뽑으며, "목침은 너를 주는 것이니 가지고 가되 내가 이 다음에 찾을 날이 있을 터이다"[52]라고 하며 쫓아버린 일이 있었다. 후일 양주 회암사에서 대왕대비의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주장하던 보우가 재를 올린 끝에 일장 설법을 막 하려는 순간, 병해대사가 나타나서 "보우야!"[53] 하고 끌

50) 홍명희, 2권, 285쪽.

51) 이판서: "아조(我朝)로 말하면 신돈이 같은 중놈이 국정을 탁란(濁亂)할 리는 없지."
갖바치: "글쎄요, 이삼십 년 후에 곤댓짓하는 중놈이 없으란 법도 없지요."(같은 책, 119쪽)

52) 같은 책, 322쪽.

어내어 꾸짖었다.

병해대사의 일화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병해대사가 칠장사에 있은 지 4년째 되던 해의 일이다. 혜화문 안 갖바치가 살던 집에 김덕순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며칠간 묵고 있던 임꺽정에게 병해대사로부터 쪽지 하나가 동봉된 채, 다음과 같은 편지가 전해졌다.

> "제웅을 사를 때 바늘들을 뽑아라. 나의 낯을 보아서 목숨만은 살리고 이 쪽지를 주어라."[54]

이 편지에 동봉된 윤개견(倫開見)이라고 적힌 쪽지에서, 윤은 정희량 밑에서 병해대사와 동문수학했던 김륜을 가리킨다. 스승 정희량은 이미 김륜의 됨됨이를 아는 터라 『부주비전』과 『망단기결』만은 김륜에게 전수하지 않았었다. 병해대사는 윤원형이가 김륜과 함께 인종을 방자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원작의 양주팔이 만화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원작의 양주팔의 일생에서 함흥 고리백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천년[정희암]의 제자 시절을 거쳐 혜화문 갖바치 노릇하던 때까지가 만화에서는 갖바치 양주봉으로, 그리고 양주팔이 병해대사가 된 이후의 시기는 만화에서 구공 스님으로 형상화되었다. 작가는 원작의 양주팔을 구공과 갖바치 양주봉으로 분신(分身)시켜 임꺽정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한 인물의 분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구공과 갖바치는 동갑내기[55]이자 불알친구[56]로 설정되어 있다. 양주팔의 인생시기를 고려하자면, 갖바치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미래의 '의적'에게 미친 영향은 구공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구공부터 분석하기로 한다.

구공 스님은 작품에서 플롯(plot) 전체를 관장하는 전지적(全知的)인 인물로서 작가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57] 그는 임꺽정의 인생 행로에 원작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다음의 대사를 보자.

---

53) 홍명희, 3권, 242-247쪽.
54) 홍명희, 3권, 21쪽.
55) 구공 (갖바치에게): "그중에서도 특히 내 맘에 드는 것은… 자네와 내가 동갑내기로서 나보다 자네가 더 늙어 보인다는 것일세."(이두호, 2권, 130쪽)
56) 이두호, 1권, 56쪽.
57) cf., 구공 (차손과 옥봉에게): "아이들 같은 마음이라야 하늘에 닿지.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은 하늘이니까."(이두호, 16권, 221쪽)

구공 (갖바치에게): "나중에 꺽정이 오거든 잘 맡아두게. (…) 글도 좀 가르치고. 내가 그놈을 장가보낼 것이구먼!"[58]

꺽정에 대한 구공의 관심과 기대는 꺽정이 어렸을 적부터 아주 컸던 까닭에, 꺽정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불의지시 귀인래조(不意之時 貴人來助)'[59]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그의 이러한 "불의지시 귀인래조'는 이보다 먼저 이미 시작되었었다. 작가는 또 일화를 변형시키면서 임꺽정을 전다비와 연결시킨다. 박차복을 패댕이친 후 박좌수의 보복을 피해 서울 갖바치댁에 가던 꺽정에게 불쑥 나타난 구공이 칼에 베인 쇠벙거지를 보여주어, 꺽정이가 전다비 선생으로부터 검술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꺽정이 양주로 돌아가는 길에 구공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이다.

구공 (꺽정에게): "제민도! 내가 그렇게도 손에 넣고 싶어했던 칼인데…. 네놈이 임자가 되다니!"[60]

이처럼 구공은 꺽정에게 다시 한 번 '제민도'를 상기시켜 준다. 이 장면은, 나중에 꺽정이가 정경부인 정난정의 가마를 패댕이친 후 보행수 집으로 돌아온 꺽정에게 구공이 "이놈아. 네놈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나 알아? 그 칼…. 부러뜨려 엿이나 먹든지 내버리든지…."[61]라며 통렬하게 꾸짖으며 의적의 길을 각성시켜 주는 장면과 상응하게 될 것이다.

그 뒤 꺽정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구공은 꺽정에게 남이의 시조를 옮어주며 장부의 기상을 북돋우고 제민(濟民)의 길을 각인시킨다.

구공: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민족의 정기가 예서부터 시작되는 게야. (…) 세상의 물욕에 회가 동하거든 그 서늘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임꺽정: "알 수 없는 일이야…. 이럴 땐 천근 같은 무게가 느껴지니…."(…)
구공: "임꺽정이… 백두산 정기 받아 제민(濟民)의 도리(道理)를 다하게 해달라고 빌었다."[62]

---

58) 이두호, 1권, 57-58쪽.
59) 같은 책, 207쪽.
60) 같은 책, 204쪽.
61) 이두호, 16권, 43쪽.
62) 이두호, 2권, 197-203쪽.

그런데 작가는 '의적 모티프'가 임꺽정을 통해서 실현되기 전에, 그것이 과거에 구공이 그토록 희구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음을 내비침으로써, 당시 시대상황에서의 '의적 모티프'의 당위성을 은밀히 강조한다.

구공: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만약 그때 내가 선생님의 그 술수를 터득했더라면, 너는…, 지금쯤 소백정이 아닌… 사람백정이 돼 있을 것이구먼."

임꺽정: "무슨 말씀입니까요?"

구공: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으나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 권세와 부를 가진 자들이, 갖은 만행과 패악을 저지르고도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제 배때기를 두드리는 게야. 해서… 나는 그런 놈들한테 죽음의 순서를 정해 주고 싶었단 말이다. 물론 백정 임꺽정이란 놈을 앞세워서 말이다."[63]

백두산에 다녀온 이듬해 봄 금강산에서 꺽정이 구공을 다시 만났을 때, 구공이 보우에게 목침을 던진 일화는 원작과 동일하다. 꺽정은 구공과 금강산에서 내려오면서, "관에 뜯기고… 귀인 행차에 징발되어 등짝이 휘어지는"[64] 그곳 백성들의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생나무들을 뽑아 행차길을 막아 복수한다. 구공은 다시 꺽정을 데리고 한라까지 남행길에 나서며, 부패한 관리들과 양반들의 수탈과 압제에 피폐리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할 것이다. 제주 가는 길에 만난 토정 이지함의 말을 인용한다.

이지함: "서해 건너편에 중국이 있고 동해쪽에 왜국이 있다. 그리고 오랑캐 땅이 북쪽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제주가 어찌 멀다고만 하겠느냐? 우리 땅 우리 이웃 마을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임꺽정: " … ."[65]

이지함은 꺽정에게 나라와 이웃에 대해 이처럼 일깨워준다. 구공의 손에 이끌려 임꺽정은 나라 전체에 걸쳐서 위정자들의 국정농단, 탐관오리들의 부패와 민중 수탈의 현장,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목도하고 경험함으로써, 사회의 억압구조와 불평등한 현실에

63) 이두호, 10권, 228-229쪽.
64) 이두호, 4권, 276쪽.
65) 이두호, 5권, 48쪽.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추게 된다. 이는 원작의 주인공이 화적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음을 상기할 때, 만화의 임꺽정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현실에 분노할 줄만 알았던 원작의 주인공을 넘어서서, 만화의 주인공은 이러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반에 대한 증오와 시대에 대한 저항을 가슴 깊이 간직함으로써 어떤 혁명의 불길이 가슴에 타올라 기꺼이 혁명의 대열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전다비 스승으로부터 검술 실력과 제민도를, 그리고 그의 평생의 정신적 지주인 구공 스님을 통해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 능력을 갖춘 임꺽정은 '메시아적 존재'로 발돋움한다. 작가의 개연성(probability)있는 인물설정과 치밀한 구도를 통해서 임꺽정은 의적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변형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의적으로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작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일화를 끼워넣는다. 구공과 꺽정이 김해에 왔을 때이다. 광양 사람 일곱 명이 곡식을 구하러 김해에 왔다가, 김해부 아전 김달수의 횡포로 쌀 한톨, 보리 한줌은커녕 돈을 빼앗기고 일행이 죽거나 다친 일이 있었다. 그때 분노와 좌절감에 어쩔 줄을 모르는 광양 백성들에게 구공이 다음과 같이 일렀다.

> 구공: "한번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허나, (…) 김해부 아전 김달수! 그 놈을 징치해야 합니다. (…) 앞으로 보름을 넘기지 않아서, 여러분은… 김해부 아전 김달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임꺽정의 어깨를 툭툭치며:) 이 젊은이가, 그놈의 모가지를 닭모가지 비틀듯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
> 임꺽정: "뭐, 뭐요? 내가 언제 그따위 말을 했소?"[66]

구공이 "힘 좋다는 게 뭔데 그만 일도 못 하고 꽁무니를 빼? 이 백정놈아!"[67]라고 꺽정을 나무란 뒤 두 사람은 각기 제 갈길로 갔는데, 며칠 후 꺽정은 광양 백성들로부터 "필시 하늘이 내린 분일겨. 아전놈을 박살내준 사람"[68]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불의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단신으로 행동으로 나섰던 노스승 생각에 꺽정의 가슴에 비가 내렸다. 제 1부의 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을 작가는 임꺽정의 회한에 찬 모습으로 클로즈업(close up)시켰다.[69] 이 컷

66) 이두호, 5권, 263-264쪽.
67) 같은 책, 266쪽.
68) 같은 책, 281쪽.
69) cf., 갖바치: "너는 아직도 그때 김해 아전 김가를 네 손으로 때려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임꺽정: "예. 아무래도 스님께선 그 아전놈을 징치하다가 변을 당하신 것 같아서요."(이두호, 6권, 40쪽)

(cut)은 작품에서 독자에게 긴 여운을 주었던 장면들 가운데 하나이다. 임꺽정의 용모가 털보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시점 이후부터이다.[70]

구공 스님과 꺽정이 소식이 끊긴 지 5년이 되었을 때, 죽산 칠장사에 있던 구공이 갖바치[원작에서는 김덕순]에게 안부편지를 그리고 꺽정에게 "제웅을 태우고 송곳을 뽑아라.[71]"는 편지가 왔다. 우연히 남산 국사당에 오른 꺽정은 외딴 초막에서 인종을 방자하던 윤원형과 점쟁이 김초장[원작에서는 김륜]을 계곡으로 내질러버리고, 제웅에 박힌 송곳을 뽑고 제웅을 불살랐다. 구공은 이처럼 윤원형이 인종을 방자할 것임을 예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꺽정이 다섯 아우들과 '육형제가 의형제 · 의적 결의'할 때, 구공은 옥봉에게 "의적을 일곱 장이나 써주었는데 사람은 여섯이니 남은 한 장이 걱정이로다"[72]라며 서림의 배신을 예견하였다.

요컨대 작가는 구공 스님을 통해서, 원작에서는 조급하고 다중적인 성격과 무지 때문에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결여된 인물이었던 임꺽정을 진정한 의적으로 발돋움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갖바치 양주봉에 대해 살펴보자. 원작에서의 양주팔의 일생에서, 함흥 고리백정 시절부터 혜화문 안 갖바치 시절까지가 만화에서는 갖바치 양주봉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갖바치는 '백정학자'이다.

> 장학봉 (꺽정에게): "내 보기엔 진작 득도하신 스님 같더라. (…) 비록 백정이긴 하지만 갖바치 어른은 학문이 높으신 분이잖아!"[73]

갖바치는 학문이 높아서 조광조 등과 교유하면서, 임꺽정, 장학봉[원작의 이봉학], 조금맹[원작의 박유복] 등을 가르친다. 작가는 여기에서 새로운 오브제를 삽입하여 작품의 틀을 변형시킨다. 조광조가 중국 사신에게서 받았던 벼루를 그가 평소 흠모하는 갖바치에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조금맹이 이 벼루를 훔쳐 도망쳤다. 이 벼루는 세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깊은 마음을 제자들에게 헤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후일 임꺽정과 보행수를 연결시켜 주는 오브제가 된다.[74] 도망간 금맹이를 두고 갖바치는 "괴나리봇짐을 챙길 때 어쩌다 그 벼루가 싸잡

70) 이 장면을 끝으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5년간은 아마도 임꺽정이 진정한 의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성찰과 고뇌의 시기였을 것이다.
71) 이두호, 6권, 44쪽.
72) 이두호, 16권, 223쪽.
73) 이두호, 1권, 139쪽.
74) 작가가 창조한 오브제인 벼루는 작품에서 이와 같은 직접적인 기능 외에도, 그것이 다시 보행수에서 윤원

혀 들어간 것이다. 그놈이 그래도 속마음이 깊은 놈이야. 언젠가는 너희들도 그걸 알게 될 게야"[75]라고 꺽정과 봉학에게 변호하며, 훗날의 '결의형제'를 예고한다. 벼루를 훔쳐 달아나는 금맹을 새벽에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갖바치는 금맹에게 "그 차림으로 첫새벽에 나가면 의심받기 십상이니라. 까딱 기찰이라도 만나 짐뒤짐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76]라고 일러주고, "네 골수에 사무친 복수심은 낸들 어쩔 수가 없구나. 만약 일이 여의치 않거든 떠벌 스님을 찾아보도록 하고…. 자! 받아라, 떡이다. 개떡이지만 하루쯤 요기는 될 것이다"[77]라며 금맹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다른 스승들처럼 갖바치도 역시 앞일을 예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구공과의 대화를 들어보자.

> 구공: "큰 난리는 아직 모르지만 작은 난리는 눈앞에 있으니 안달 말고 기다려봐. 아 바바!" (…)
>
> 갖바치: "건천동에 인물 하나가 났었느니라. 그때 그 인물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큰 힘이 되리니…."[78]

갖바치와 구공은 전라도왜변과 임진왜란 그리고 이순신의 출현을 예언했던 것이다. 갖바치는 훗날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암시했고,[79] 구공에게 뒷일을 미리 부탁했다.[80]

그러나 갖바치 양주봉은 임꺽정에 대해서 구공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구공이 임꺽정을 의적으로서의 역사인식을 일깨우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격려하는 입장이지만, 갖바치는 그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했다. 구공의 편지를 받은 후, 남산 국사당 근처 초막에서 제웅을 불사르고 돌아온 꺽정에게, 밤새도록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룬 갖바치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을 거쳐 정순붕에게까지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당시 관료사회의 부패상을 암시해 주는 간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75) 이두호, 2권, 104-105쪽.

76) 이두호, 3권, 294쪽.

77) 같은 책, 297쪽.

78) 이두호, 7권, pp.96-97.

79) 갖바치 (꺽정과 학봉에게): "너희들이 전장에 갔다 올 때쯤 나는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다. 떠버리 중놈을 동무해서 팔도를 떠돌든지…, 어디 누울 자리가 눈에 띄면 눕고 싶구나."(같은 책, 144쪽)

80) 구공: "그 엉큼한 놈이 (…) 그저께 아침에 느닷없이 하는 말이 지가 죽으면 화장해서 이 강에 뿌려달라는 거야."(이두호, 10권, 140쪽)

갖바치: "송곳을 뽑고 제웅을 살랐느냐?"

임꺽정: "예?"

갖바치: "사람을 죽였느냐? (…) 세상이 온통 핏빛이 될 것이다. 소백정이 사람백정 될까 두렵다."[81]

이처럼 갖바치는 난세(亂世)에 임꺽정이 한 인간으로 탈없이 살기를 바랐다. 구공이 변혁을 꿈꾸는 혁명가적 입장을 가졌다면, 갖바치는 난세를 피해 가려는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스승이었다.

나. 임꺽정과 결의형제들

여기에서는 임꺽정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삽화 등 몇 가지를 중심으로 원작과 달라진 부분을 분석하고, 그의 결의형제들의 변화된 면모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창작 모티프에 어울리게 주인공의 성격이 변형되어 있다. 그의 괴팍하고 다중적인 성격은, 형 가도치가 죽은 이후와 서울에서의 방황시기를 제외하고는 만화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인간미가 넘치고 순진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향심[=자현]이 '지아비'한테 차려주는 진짓상에서 종지의 간장까지 마시는 "뚝배기보다 장맛"[82] 같은 인간미를 물씬 풍길 뿐만 아니라, 향심과 합환주를 마신 후 취중 잠결에도 아내만을 생각하는 순진한 인물이다.[83]

임꺽정 (마빡에게): "네놈이나 나나 여자는 그저 하나밖에 모르는 모양이지!"[84]

이는 서림의 표현대로 원작에서의 '영웅호색'과는 정반대되는 면모라고 하겠다. 작가는 여러 인물들과 일화들을 창조해 삽입함으로써 임꺽정을 변형시켰다. 원작의 팔삭동이 동생은 형 가도치로 그리고 누나 섭섭이는 동생 꺽순이로 등장시켜, 그들과의 일화를 통해 그의 우

81) 이두호, 6권, 60-61쪽.

82) 이두호, 3권, 188-189쪽.

83) 향심: "정혼하셨다는 여인이 봉필입니까? (…) 잠결에 봉필이, 봉필이 하시더군요."
임꺽정: "미안하오."
향심: "아닙니다, 저한테는 서방님이 더 돋보일 뿐입니다."(같은 책, 185-186쪽)

84) 이두호, 7권, 32쪽.

애와 인간미있는 성격을 드러낸다. 그런데 꺽순을 겁간한 박차복을 그 집 명토 박힌 종인 두팔이가 처치한 일이 있었는데, 꺽정이가 그를 그의 천궁에 숨겨두었다. 박좌수에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고 있던 양주 목사의 서슬이 시퍼런 상황에서, 구공의 도움으로 꺽정과 두팔은 무사히 탈출했다. 그후 두팔이 박차복의 아들 업손이를 낳은 꺽순을 아내로 맞게 되었고, 후일 아버지 임불쇠의 무덤에서 남매를 데리고 온 꺽순에게 "가거든 양서방[85]한테 (…) 손에 잡은 괭이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부탁도 잊지 말아라"[86]며, 임꺽정은 농민이 되어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사는 동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전한다. "자자손손 사람도 아닌 백정으로 살기보다야 차라리 산도적이 나을지 모르는"[87] 자신의 처지에서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으리라. 다음 인용문은 서림이 보행수에게 임꺽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목이다. 서림은 언제든지 "등 따습고 배부른 길을 찾는"[88] 인간이기에 다른 의형제들보다는 임꺽정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대사는 작가가 임꺽정을 변형시킨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행수: "그러니까… 엄 선다님이 보시기엔 대두령님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단 말씀이지요?"
>
> 서림: "그렇습니다. 하늘을 떠받들 듯이 우뚝 선 당산나무 같은 그 외모에서 우선 그렇고 시원한 그늘에 멍석을 터억 까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또한 사람을 끌지요."[89]

임꺽정의 일생에서 작가가 창조해 삽입한 전환점이 되는 일화 가운데 하나만 더 소개한다. 임꺽정이 서울에서 방황하며 기생 소홍이 그리고 세 명의 여인들과 살림을 차리고 방탕에 빠졌던 시절에, 또 어김없이 찾아온 스승 구공이 꺽정을 향심과 곱사등이 옥봉과 대면시킨다. 원작에서는 갖바치의 첩이 겁간을 당해서 낳은 아들 금동이가 겪은 보쌈 일화[90]를 작가는 임꺽정과 양반집 규수 자현이 만나는 계기로 변형시켰다. 시집가던 양반댁 규수 자현이 장마 때문에 물이 불어난 강물에 가마째 빠진 것을 스무 살 총각 임꺽정이 구해 주었는데, 가문의 체신을 따지는 자현 아버지에 의해 또다시 꺽정, 자현, 두 가마꾼이 어둠 속에서 강물에 던져

85) 두팔은 원래 성(姓)도 없었으나, 구공이 그를 양주에서 무사히 탈출시켜 준 후에 양가라는 성을 붙여주었다.
86) 이두호, 14권, 140쪽.
87) 이두호, 8권, 257쪽.
88) 이두호, 20권, 44쪽.
89) 같은 책, 40-41쪽.
90) 홍명희, 2권, 146-151쪽.

졌다. 나중에 가도치의 아내가 될 길녀의 아버지에 의해 꺽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그는 후일 마빡 김달평을 돕기 위해 우연히 들른 기방에서 기생이 된 자현[기명이 향심임]을 다시 만났다. 회생 후 첫번째 만남에서 향심과 그녀의 평생의 정인(情人)이었던 꺽정 사이에서 옥봉이 태어났는데, 임꺽정은 그 딸이 곱사등이가 되고 향심이 장님이 된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구공이 만들어준 마지막 만남에서 알게 되었다. 딸 옥봉이가 "지금은 그 잘난 양반님 되시구?"[91]하며 양반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자신에게 던졌던 일, 향심과의 사별, 그리고 병신 딸년처럼 곱사등이춤을 추며 방탕했던 날들에 대해서 임꺽정은 깊은 회한에 빠진다. 이 일화가 임꺽정이 화적패들을 규합해 본격적으로 의적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작가는 가공의 인물들과 일화들을 적절하게 삽입함으로써, 잠재적인 의적을 세상으로 내보냈다.

임꺽정이 서울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청석골로 돌아온 후, 서림이 갈무리해 둔 패물을 가지고 아들 차손[원작에서는 백손]과 함께 죽산 칠장사로 향한다.

> 임꺽정: "재물이란 도적맞을 염려없고 불에 탈 염려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구공: "그러냐? (…) 그럼 이 재물을 맡기고 오너라 당장."[92]

이 말은 의적 행동의 시작을 의미한다. 칠장사로 돌아온 꺽정에게 구공은 "부정으로 치부한 사람의 재물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의협심 많은 도적을 의적이라고 하지"[93]라며 '의적(義賊)'을 일곱 장을 써주었다. 그리하여 서림을 제외하고, 임꺽정, 장학봉, 조금맹, 황봉출, 박돌깨, 구만포는 의형제를 맺으며 의적임을 다짐한다. 청석골로 돌아온 꺽정은 청석골패의 모든 식구들을 모으고 의적임을 선포하며 의적비를 제막하고, 계속하여 황해도 각 지역의 패들을 '의(義)'라고 씌어진 신표를 반쪽으로 나눠가지며 의적으로서 유대를 가진다. 이제부터 청석골패는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94]하고 "터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대두령님 말씀"[95]을 실천해 갈 것이다.

---

91) 이두호, 15권, 307쪽.
92) 이두호, 16권, 105쪽.
93) 같은 책, 192쪽.
94) 이두호, 18권, 150쪽.

그러면 이제 임꺽정의 결의형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원작에서는 '칠형제'였던 것이 '육형제'로 변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임꺽정의 아우들의 달라진 면모만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장학봉은 원작의 이봉학과 이름만 바뀌었으며, 단지 그가 그의 조부님이 남겨주신 유품인 활로 출세할 작정이라는 사실만 드러난다. 작가는 꺽정의 다섯 아우들 중에서 둘째 동생인 조금맹을 가장 많이 변형시켰다. 작가는 기본적으로 원작의 박유복과 배돌석을 합성하고, 가공의 일화를 삽입해서 조금맹을 창조했다. 작가가 박유복에게서 빌려온 것은, 어린 시절 꺽정이와 장학봉[이봉학]과 함께 갖바치 댁에서 같이 지내며 의형제 결의를 한 일과,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전국을 누빈 끝에 원수를 갚은 점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원작에서는 모함 때문이었던 것을, 만화에서는 그 사연을 전적으로 변형시켰다. 작가는 여장남자 무당인 자금치란 가공의 인물을 금맹이의 원수로 설정하고, 원작의 박유복이 그의 아내를 만난 계기가 되었던 장군사당 에피소드에 자금치를 장군귀신으로 등장시켜 흥미를 돋우었다. 표창의 달인이었던 박유복 대신에, 만화에서는 장학봉이 그의 조부 유품인 표창 열 개를 돌팔매의 귀신인 조금맹에게 주는 것으로 변형시켰다. 다음에 배돌석에게서 빌려온 것은, 특기인 돌팔매질과 을묘왜변에 출전한 일, 그리고 특히 그의 용모이다. 작가가 형상화한 조금맹의 모습을 보면 '반상과 사목'만 빼고 배돌석의 외모 그대로이다.

그리고 걸음이 사슴같이 빠르고 장기 실력이 출중한 황봉출은 황천왕동이를 그대로 따왔으며, 박돌깨는 원작의 곽오주를 모델로 한 것이다. 그가 머슴 출신이어서 쇠도리깨질이 특기이고, 서림과 가장 앙숙이라는 점, 그리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말을 불쑥불쑥 내뱉는 점 그리고 개래동 정첨지 아들이 보쌈해 온 과부를 처로 맞이한 일화까지 모두가 곽오주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곽오주가 급한 성미 때문에 어린 아들을 죽이게 된 후, 우는 아이만 만나면 실성해서 아이를 죽이는 일화는 의적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아서인지 만화에서는 아예 삭제되었다. 작가는 대신에 돌깨의 처가 정한수에게 겁간을 당해서 혀를 깨물고 자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박돌깨는 처의 원수를 갚고 청석골로 들어간다.

끝으로 구만포는 원작의 길막봉이처럼 소금장수로서 힘이 장사이며, 다른 소금장수의 외동딸을 처로 맞이하지만, 원작에서는 길막봉이가 숭물스러운 행동으로 그랬음에 비해, 만화에서는 구만포가 의협심을 발휘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처리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적 모티프에 적합하게 변형된 임꺽정과 평행하게, 그의

95) 같은 책, 193쪽.

아우들도 합성이나 변용 또는 창조를 통해서 지나치게 잔학하거나 변태적인 면은 삭제되거나 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서림과 보행수

서림이란 인물은 원작에서와 같으며, 관련된 일화들만 약간 변형되어 있다. 그리고 보행수는 작가가 원작의 여러 인물들을 합성시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은 각색을 통해서 원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함께 다루게 되었다.

원작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안 감영의 수지국 장사였던 서림은 평안 감사 김명윤의 진상봉물을 챙겨 도망하다가 청석골에 붙들려오게 되었다. 그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서울로 올라가는 진상봉물을 몽땅 터는 계략이 성공하게 되어 임꺽정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청석골패의 모사 역할을 하게 된다. 봉출의 표현대로 "염소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실눈을 요리조리 굴릴 땐… 꼭 쥐새끼 같은"[96] 외모를 가진 서림은, "꾀는 조조 같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간사한"[97] 인간이다. 두령들이 의형제 결의하러 간 사이에 서림은 어린 계집을 농락거리다 경군의 기찰에 걸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즉각 "임꺽정의 수하에 있는"[98] 이라며 꺽정을 배신하려는 찰나 꺽정 일행이 구해 준 일도 있고, 병장기를 구입할 귀물 궤짝을 훔쳐 홍매와 서울에 살림을 차리기도 하는 등, 서림의 간교함은 원작에서보다 훨씬 강조되어 있다.

서림이가 좌포도대장 김순고에게 체포되는 과정을 보면, 원작에서는 서림의 장모의 부탁으로 좌포청에 투옥된 장모의 아들을 빼내기 위해 주선하러 서울에 올라온 서림을, 한온의 집 서사였던 배신자 최서방이 밀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화에서는, 양주 회암사 무차대회에서 서림의 '손 안 대고 코풀기'[99] 계략—이 역시 작가가 새로 만들어 삽입한 에피소드이다—에 따라 확보한 귀물 궤짝 세 개를 가지고 병장기를 구입하기 위해 보행수 집에 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간교한 서림이 귀물 한 궤짝을 훔쳐 홍매에게 숨겨두었었으나, 홍매는 예전에 오빠라던 기둥서방과 함께 숭례문 객점마저 팔아버리고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뒤였다. 이는 작품에서 '모사'인 서림이 배신당하는 유일한 예이다. 그런데 서림의 하인과 함께 주막에 있

96) 이두호, 17권, 236쪽.
97) 이두호, 20권, 44쪽.
98) 이두호, 16권, 237쪽.
99) 이두호, 18권, 151쪽.

던 이주갑[원작의 노밤이]이, 지난번의 목멱산 사건 때문에 좌포청 나졸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까닭에 좌포청에 끌려와 문초를 받게 되면서 서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보행수가 '배신당한' 서림에게 위로주를 사준 게 화근이 된다. 이처럼 작가는 청석골패 몰락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새로운 일화와 함께 전면적으로 바꿨다. 이제부터 서림은 관군에 귀순하여 청석골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행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서출인[100] 그의 이름은 한백수로서, "보름보기 보와 행수 행이 합쳐져 보행수란 별호"[101]로 불리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보행수를 원작에서, 정경부인 정난정과 보우의 비호를 업고 발호하던 남소문안패의 괴수 한백량으로부터 그의 연배와 사회적 위치를, 아들 한온으로부터는 임꺽정이 서울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같이 방탕하던 한량(閑良)의 역할과, 그리고 조정의 정보를 청석골에 제공하는 정보원[102] 겸 장물아비로서의 역할을, 끝으로 아마도 그의 보름보기는 애꾸눈이 노밤이로부터 빌려와서 합성하여 만들어낸다. 그러나 보행수의 성격은 전적으로 작가가 창조한 것이다.

보행수와 임꺽정의 만남은 작가가 만든 오브제인 벼루에서부터 시작된다. 갖바치의 벼루를 조금맹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떠나는 길에 팔아서 노자로 쓰려고 훔쳐 달아났었다. 보행수로부터 받지 못한 벼루값을 받으러 꺽정과 금맹이 송파 보행수 집에 가면서 그들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다. 보행수는, 청동화로를 맨손으로 구부러뜨리고 궤짝의 자물쇠를 뭉그러뜨린 꺽정의 힘과, 그리고 꺽정이를 몽환약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점쟁이를 불러다 보았던 그의 관상에 반했으며, '도둑괴수'와 장물아비 사이의 의기투합을 기대했다. 서림만큼이나 지략이 뛰어난 보행수는 십 년 세월을 기다려 임꺽정과 순치지세(脣齒之勢)를 이룬다. 이러한 순치지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세월 동안의 벼루에 얽힌 일화, 진상봉물과 관련한 숱한 사건들과, 그리고 서림과의 불꽃 튀는 심리전 등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꺽정이가 방황하던 시절 보행수와의 여러 일화들은 원작에서의 한온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임꺽정이 구공의 손에 이끌려 향심과 딸 옥봉이를 만나면서, 그의 방황생활을 끝마치게 될 때 기생 소홍이와 세 처들과의 이별방식을 제외하고는 임꺽정에 대한 보행수의 기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케해주는 사건이 있다. 임꺽정의 방탕한 생활이 극에 달했을 무렵에 임꺽정이 정난정의 차지가 되

100) 보행수 (꺽정에게): "나 역시 서출이 아닌 적자로 태어났다면, 요모양 요꼴로 백정놈 따위와 무릎을 맞대고 앉았진 않을 터이니…."(이두호, 4권, 213쪽)

101) 이두호, 14권, 24-25쪽.

102) 임꺽정 (보행수에게): "서울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는 손바닥 보듯 훤히 살펴주시는 보행수가 있는데 거점이라니?"(이두호, 19권, 56쪽)

었다고 말하자 보행수는 대뜸 "잘났다 이 백정놈 새끼야"[103]라고 일갈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작가는 보행수란 개성있는 인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주갑의 발설로 좌포청에 체포된 사람은 원작에서처럼 서림 혼자가 아니라, 보행수와 서림이 함께 붙들려 문초를 받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작가의 치밀한 인물 설정구도가 드러난다. 두 사람은 맞대면한 채 토포사 남치근과 좌포장 김순고에게 문초를 당한다. "대두령님 영이라면 섶을 지고 불에라도 뛰어들거라던"[104] 서림은 살길을 찾아 토포사에게 "귀순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을 테니까 계책을 쓰면 잡을 수 있습니다"[105]라고 말하며, 보행수를 회유하려든다. 다음 대화를 들어보자.

남치근: "임꺽정이란 도적놈을 만난 적도 없단 말이지?" (…)

보행수: "임꺽정이란 대장부는 만난 적이 있어도 임꺽정이란 도적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

보행수: "나 같은 놈이야 좀도둑이나 상대하는 장물아비지만 그 어른은 도적이 아닙니다. 진짜 도적놈들한테 빼앗긴 것을 찾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실 뿐이지."

(…)

보행수: "나는… 일찍이 임꺽정이 백정일 때부터 임꺽정이란 사람한테 반한 사람이오! 사람이 사람한테 반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법이지요. 나도 임꺽정이를 닮아가지고… 내 재산을 몽땅 다 퍼주었소이다."[106]

작가는 먼저 보행수란 인물을 창조해서 그와 서림·임꺽정과의 순치지세를 보여준 후,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대비시킴으로써 임꺽정의 의적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행수와 서림은 '포일(foil)'[107]기능을 하는 인물들이라 하겠다. 보행수는 작가의 모티프와 관련하여 볼 때,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

103) 이두호, 15권, 233쪽.
104) 이두호, 19권, 275쪽.
105) 이두호, 20권, 159쪽.
106) 같은 책, 168-175쪽.
107) '포일(foil)'이란 대조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동인물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짝패 인물을 통한 새로운 구조 구축

가. [임꺽정-남치근] 쌍의 숙명성

원작에서의 역사적 시간 배분을 보면, 1권부터 3권까지는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의 피바람이 일기 직전 홍문관 교리 이장곤이 거제도로 귀양가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을묘왜변(1555)까지의 51년간을, 그리고 4권부터 10권까지가 이후 5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체 10권 분량에서 볼 때, 역사적 시간의 분배가 다소 불균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1권과 2권의 내용은 임꺽정과 같은 의적이 출현하게 될 시대상황의 당위성과 함께, 이장곤-갖바치-임꺽정이 종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 구조를 담고 있다. 1권과 2권에서 벽초는 이교리부터 갖바치를 거쳐 임꺽정의 출생내력과 성장기까지를 연결지어 일대기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만화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여, 백정 임꺽정과 '백정학자' 갖바치의 복잡한 혈연관계를 임꺽정과 장학봉의 대화를 통해서 언급하는 데 그친다.

> 임꺽정: "갖바치 어른과는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라 어쩌다가 들르지만 너를 본 적은 없었는데?"
> 장학봉: "네가 검술 배우러 가기 두어 달 전쯤에 여기 왔어."[108]

작가는 이처럼 원작에서 1권과 2권의 내용이 된 임꺽정의 출생내력을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작품의 구조를 새롭게 설정한다. 작가는 원작의 시대배경·인물·사건과 일화 들을 대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원작의 이야기 틀에 임꺽정과 남치근의 숙명적인 만남과 대결구도를 추가하였다.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봉학이는 뛰어난 활솜씨를 바탕으로 출세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임꺽정은 아직 한 번도 마음껏 휘둘러본 적이 없는 제민도[원작의 장광도]를 한 번 써보고 싶어서 군총에 지원하였으나, 임꺽정만 소백정이라는 이유로 병조 무비사 관원들에게 퇴짜당하는 것은 원작에서와 동일하다. 그런데 전장에서 왜병들의 허방에 빠져 포위된 남치근이 자결하려 할 때, 임꺽정이 단기필마로 남치근과 휘하의 이봉학을 구출하는 일화를, 원작에서는 남치근이 "봉학아, 너의 형이란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109]라는 문답으로 임꺽정

108) 이두호, 1권, 138쪽.
109) 홍명희, 3권, 359-360쪽.

이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작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킨다.

남치근: "소속은 어디고?"
임꺽정: "소속 같은 거 없습니다."
남치근: "소속이 없다?"
임꺽정: "없습니다. 백정이라고 군총으로 뽑아주지도 않았습지요."
(…)
남치근: "하긴…, 사람 속에 백정이 끼일 수는 없지."[110]

원작의 장면을 이렇게 변형시킴으로써 작가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숙명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작가는 이 장면을 21권이나 되는 장편의 1권에 서막(序幕)으로 다시 한 번 올려서 그들의 숙명성을 부각시켰다. 나중에 임꺽정패가 옥에 갇힌 구만포를 구출할 때, 안성군수가 활을 맞아 중태에 빠지고 관아와 고을이 쑥밭이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직후 살모사 백천만의 가짜 임꺽정 체포사건이 빌미가 되어, 좌포장이던 남치근이 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량의 천거로 간신히 토포사가 된 남치근은 토포군을 발행한다. 토포사 남치근의 경군과 임꺽정패의 최후의 접전지는 구월산성이다. 장학봉이 남치근의 작전을 정확히 분석한데다가, "너희들 목숨은 너희들 목숨이 아니고 백성들 목숨이니까 조심하고 아껴라"[111]는 어느 졸개의 말처럼 임꺽정패는 사기충천해서 연전연승을 거둔다. 그러나 남치근은 죽어나가는 관군 대신에 민간인을 닥치는 대로 조발해서 장기전을 계획하다가, 서림이 낸 민간인 볼모작전을 쓰기로 한다.

임꺽정: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내려다보이지만… 사람들 숨결은 들을 수가 없지."
박돌깨: "무슨 말씀이오?"
임꺽정: "산성을 내려가겠단 말이다."
(…)
조금맹: "아시면서 허방에 스스로 빠지겠단 말씀입니까?"
(…)

110) 이두호, 8권, 54-55쪽.
111) 이두호, 21권, 116쪽.

임꺽정: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내가… 백성들의 목숨을 빌미잡아 파놓은 허방인데…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 어찌 피할 수 있겠나?"[112]

임꺽정의 '의적 인생'은 이렇게 의적의 존재이유를 공격하는 남치근의 비열한 작전으로 파국을 맞는다. 삼천 명 관군의 공격에 벼랑에 떨어진 임꺽정을 찾지 못하자, 남치근은 "의형제고 두령이고 다 소용없다. 임꺽정을 찾으란 말이다, 임꺽정을!"[113]이라며 적의를 불태운다. 임꺽정이 살모사 백천만을 처치하여 아내의 원수를 갚고 서림을 처치하려 할 때 무수한 화살이 날아와 의적의 전신에 박힌다. 작가는 마지막 페이지에, 화살이 수없이 박힌 임꺽정을 남치근과 서림이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클로즈업시켜서, 그들의 만남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작가는 임꺽정과 남치근의 숙명적인 만남과 대결이라는 수미상응(首尾相應)한 구도를 창조함으로써 방대한 장편의 구성을 짜임새있게 만들면서 흥미를 배가시켰다.

나. [전다비-임꺽정] 쌍과 [김달평-차손] 쌍의 병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두호의 『임꺽정』은 의적 모티프에서 시작해서 의적 모티프로 끝났다. 필자는 각색된 작품에서, 원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의미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작가가 창조한 '홍역 에피소드'를 매개로 한 [전다비-임꺽정] 쌍과 [김달평-차손] 쌍의 병치구도를 분석하면 그 의미구조가 드러날 것이다.

임꺽정이 전다비 스승으로부터 검술을 배우던 중에 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며 쓰러졌다. 전다비는 십수년 전 손자와 며느리를 죽인 원수를 갚은 일 때문에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오밤중에 마을로 내려와 의원 박창생을 불렀다.

박창생: "아니, 이 총각 나이에 아직 홍역을 앓지 않았다는 게요? 대개는 대여섯 이전에 앓지만 사람에 따라 늘그막에 앓는 수도 있소."
전다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창생: "죄송합니다. 편작이 와도 소용없습니다."[114]

전다비 스승이 열흘이 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은 헌신적인 간호를 다한 덕택에 그의 "목

112) 같은 책, 129-131쪽.
113) 같은 책, 187쪽.
114) 이두호, 1권, 91쪽.

숨보다 귀한 제자"[115]는 회생할 수 있었다. 사제간의 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그러면 이제 [김달평-차손] 쌍을 살펴보기 전에, 김달평이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명종 때 윤원형의 세도는 하늘을 찌를 듯해서, 그는 그의 집 하인도 궁중에서처럼 차지라고 불렀다. 원형의 차지들 중에서 가장 악질이어서 별명이 "뿌다귀 미친 개"[116]인 자가 바로 김달평이다. 그는 박치기가 특기여서 작품에서는 본명 대신에 마빡이라고 불리며, 그의 싸움솜씨를 본 보행수가 그를 도차지에게 천거하여 원형이의 차지가 된 자이다. 마빡이 용인에서 우역에 축난 소를 벌충한 일과 강나루에서 조식에게 행패를 부리려다 도리어 망신당한 일화만 제외하고, 마빡의 이름과 내력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되는 에피소드는 모두 작가가 창작한 것이다. 구만석이네 명토 박은 종놈이었던 달평은, 예전에 헤어져서 지금은 기생이 되었다는 정난정을 찾아다니던 길에 우연히 꺽정을 만나 친구가 되며, 도중에 길녀의 원수를 갚아주기도 한다. 임꺽정이 향심[자현]을 기방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마빡과 함께 정난정을 찾기 위해 기생점고하고 다니던 때이다. 그런데 난정은 이미 윤원형의 정실을 몰아내고 정경부인이 되어 있다. 위기에 빠진 원형과 난정을 단독으로 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마빡은 난정과 재회하게 된다. 난정은 마빡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게 하고, 원형이 없을 때이면 그와 옛정을 나누곤 하는 사이가 되었고, 마빡에게 있어 난정은 "하늘이고 목심[목숨]이고 전부"[117]인 존재가 되었다. 나중에 난정의 간계로 인해서 마빡과 꺽정은 사생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마빡은 보우의 눈에 띄게 되어 살아나고, 꺽정 역시 몽동이네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난정과 마빡의 사이를 의심하는 원형이가 보낸 자객에게 죽을 뻔한 마빡은 자신이 꺽정을 오해했음을 알게 된다. 마빡은 서림의 배신을 알리려고 청석골에 오게 된다.

> 임꺽정: "여긴 대장도 없고 부하도 없네. 식구들일세… 형님이고 아우고. 자넨… 친구고….
> 마빡: "… 그러니까 내 발로 왔고 내 뜻으로 가는 거네."
> 임꺽정: "잘 가게…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먼."
> 마빡: "만나야 만남인가…."[118]

115) 같은 책, 93쪽.
116) 이두호, 6권, 278쪽.
117) 이두호, 18권, 236쪽.
118) 이두호, 20권, 269쪽.

꺽정과 마빡은 이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고 헤어진다. 마빡은 금맹이가 준 표창 하나를 가지고 서림을 찾아나서는 길에, 이주갑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차손이를 그 표창으로 구하게 된다. 마빡이 차손이를 데리고 광복산으로 향하던 도중, 몸이 불덩어리가 된 차손을 안고 찾아든 집이 바로 의원 박창생의 딸이 사는 집이다. 작가는 이처럼 내력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일화를 엮어가는 중간에 [김달평-차손] 쌍을 드러낸다.

> 박창생: "이 아이는 지금 홍역을 시작했소! (…) 나는… 이십칠팔 년쯤 전에도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소. (…) 그때도 지금처럼 홍역을 앓고 있었소이다. (…) 키가 자그마하고 검술 선생이던 전다비란 분이 오밤중에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고… (…) 그 어른 정성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오."
>
> 마빡: "마, 맞다! 나… 나도 들은 적 있심더. 꺽정이한테 들은 적 있심더!"
>
> 박창생: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 수 있는가… (…) 나는 소용없소! (…) 그때도 꺽정이를 살린 것은 내가 아니오. (…) 꺽정이가 스승의 정성으로 살아났으니… 아들은 아버지 친구의 정성으로 살릴 수 있겠지요."
>
> 마빡: "지… 정성으로예?"
>
> 박창생: "그렇소,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소."[119]

꺽정이가 전다비 스승과 홍역 때문에 짝패 인물로 연결되었던 것과 평행하게 [김달평-차손] 쌍이 이처럼 '홍역 에피소드'로 연결된다. 이후부터 작품이 끝날 때까지 마빡과 차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작가는 [김달평-차손] 쌍을 의도적으로 끝까지 숨김으로써, 이 짝패 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작가는 이미 작품 곳곳에서 꺽정과 아들 차손의 닮은 점을 암암리에 보여주었다.[120] 그러면 '홍역 에피소드'로 연결 된 두 짝패 인물의 병치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두 짝패 인물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구공 스님과 임꺽정의 관계와 연결되면서, 구공-[전다비-임꺽정] 쌍-[김달평-차손] 쌍을 과거-현재-미래의 의적이라는 시간축에 위치시킨다. 구공 스님은 과거의 실현되지 못한 '의적', 말을 바꾸면 '잠재태(潛在態)의 의적'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121] 그리고 임꺽정은 구공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꿈의 현현(顯現),[122] 또는

---

119) 이두호, 21권, 37-41쪽.

120) 장학봉 (차손이를 가리키며): "생김새나 말투나 하는 짓이 어릴 때 형님[임꺽정] 빼놨수."(이두호, 7권, 127쪽)

121) 주 63 참조.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러나 실패가 운명지워진 '의적'[123]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작품의 플롯 전체를 통찰하는 전지적(全知的) 인물인 구공이 던지는 복선은 의미심장하다. 다음은 남치근의 토포군이 최후의 공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구월산의 어느 절에 있던 구공이 차손에게 보내는 편지를, 옥봉이에게 전하라고 부탁하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구공: "고이 간직했다가 꼭 전하여라."
옥봉: "누구한테요?"
구공: "차손이."
옥봉: "만날 기약도 없는데요?" (…) 스님이 직접 전하시지요."
구공: "다 끝났느니라."
옥봉: "예?"
구공: "끝이 곧 시작이니라."[124]

위 예문에서 '끝'은 현재의 의적 임꺽정의 실패를, 그리고 '시작'은 새로운 '미래의 의적' 차손이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전다비-임꺽정] 쌍과 [김달평-차손] 쌍의 병치를 통해서이다. 의원 박창생의 말처럼 임꺽정이 스승의 지극한 정성으로 살아날 수 있었듯이, 차손이도 마빡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회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작가는 마빡과 정난정, 마빡과 임꺽정 사이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김달평이란 인간과 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었으므로. 이처럼 작가는 김달평이란 독창적인 인물을 창조하고, 짝패 인물들을 '홍역 에피소드'로 연결하여 병치시킴으로써, '미완(未完)의 의적'을 완성해 갈 '미래의 의적'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었다.[125]

---

122) 임꺽정과 차손이 함께 칠장사 사하촌 사람들에게 밤중에 몰래 재물을 나눠주고 다시 칠장사로 돌아가는 길에 차손이가 꺽정에게: "아버지는 왜 목소리까지도 떠벌 스님 닮아가우."(이두호, 16권, 113쪽)

123) 다음 구공의 말은 임꺽정의 실패를 예견하게 하는 복선이다.: "의적을 일곱 장이나 써주었는데 사람은 여섯이니 남은 한 장이 걱정이로구나."(이두호, 16권, 223쪽)
그리고 다음의 대화도 역시 똑같은 복선이다.
관상쟁이: "아깝습니다, 양가에 태어났으면 크게 될 인물인데…."
보행수: "크게 될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상쟁이: "당상!"(이두호, 4권, 52쪽)

124) 이두호, 21권, 92-93쪽.

125) 임꺽정은 그의 불 같은 성격 때문에 글방에서 뛰쳐나온 이후로 불학무식이었다. 그래서 결의형제를 맺기

Ⅳ.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자신의 창작 의도를 내내 견지하면서, 원작의 임꺽정과 결의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때로는 삭제하고 때로는 변용하거나 변형시키고 때로는 새로 창조함으로써 또 한 편의 독창적인 『임꺽정』을 완성했다.

작가는 작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원작에서의 창작 의도와 그것의 형상화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였다. 작가는 우선 주인공에게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원작의 스승들을 재창조했으며, 그럼으로써 임꺽정과 결의형제들의 성격을 모티프에 적합한 인물들로 변형시켰다. 그러면서 작가는 주요 인물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원작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그것들을 변용하거나 새로 창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되거나 창조된 인물들과 에피소드들이 전혀 어색하거나 겉돌지 않고 극적 긴장과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작가가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각자의 복잡한 내력과 개성 그리고 지향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배치함으로써, 그러한 요소들이 각각 내적 필연성을 갖고서 작품의 플롯에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는 원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짝패 인물들을 창조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포일(foil)'을 통해서 주동인물의 성격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21권이나 되는 분량을 가진 장편임에도 짜임새있는 구성과 새로운 의미구조를 창출했다. 끝으로 작가는, 현실적으로 실패한 의적 임꺽정을 작가가 은밀하게 구축한 새로운 구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을 수동적 독서에 내맡기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원작 소설과 각색된 만화에서 주로 인물과 사건 그리고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각색을 통해서 작가가 새로이 창조한 의미구조를 밝혔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작품 분석을 위해서는 만화와 소설이라는 장르의 본질적 특성들을 포괄하는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전에 구공 스님이 임꺽정에게 '義賊'을 써 줄 때, 임꺽정은 그것을 읽지 못하였으나 차손이 '의적'이라고 읽었다. 작가는 이 일화를 통해서 '미래의 의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cf., 이두호, 16권, 190-192쪽)

참고문헌

<텍스트>

이두호, 『임꺽정』 전21권, 프레스빌, 1995.
홍명희, 『임꺽정』 전10권, 사계절, 1991.

<참고한 저작물들>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대방출판사, 1986).
민충환 편저, 『『임꺽정』우리말 용례사전』(집문당, 1995).
신현숙, 『희곡의 구조』(문학과지성사, 1990).
이남호 편, 『한국대하소설연구』(집문당, 1997).
이재인 외 편저, 『현대소설의 이해』(문학사상사, 1996).
이정국, 『시나리오 창작기법』(도서출판 지인, 1999).
장세진, 『한국대하역사소설연구』(도서출판 훈민, 1998).
채진홍, 『홍명희의 『林巨正』 연구』(새미, 1996).
최명, 『소설이 아닌 임꺽정』(조선일보사, 1996).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전4권(어문각, 1991).
한창엽, 『林巨正의 서사와 패로디』(국학자료원, 1997).
Angenot, Marc, J. Bessière & D. Fokkema & E. Kushner, Théorie littéraire: problèmes et perspectiv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Bergez, Daniel, V. Géraud & J-J. Robrieux, *Vocabulaire de l'analyse littéraire*(Paris: Dunod, 1994).
Harrison, Randall. P., *The Cartoon: Communication to the Quick*, 하종원 역, 『만화와 커뮤니케이션』(이론과실천, 1989).
Milot, Louise & F. Roy, *La Littérarité*(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991).
Pavis, Patrice, *Le Dictionnaire du théatre*, 신현숙 · 윤학로 역, 『연극학사전』(현대미학사, 1999).
Souriau, Etienne, *Vocabulaire d'esthétiqu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0).
Wellek, René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김병철 역, 『문학의 이론』(을유문화사, 1982).